

유엔 디지털 협력 의제

전선민 ITU 이사회 작업반 및 디지털전환 연구반 부의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1. 머리말

2023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행보고서에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¹⁾의 세부목표 169개 중 140개 목표에 대한 사전이행도 점검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약 12%만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정상 궤도에 있으며, 50% 정도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SDG 목표의 약30%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도 2020년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SDGs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포함한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협력 의제의 논의와 이행 촉진을 독려해 오고 있다. 디지털 협력 의제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현안의 해결과 정보통신을 통한 문제해결 및 국제협력이라는 거버넌스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디지털 협력 의제

2.1 디지털 협력 로드맵

2020년 6월 11일, 유엔 사무총장은 회원국, 각 분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SDGs 달성을 위해 효과적 디지털 협력은 필수이며,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다자간 정책 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유엔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협력의 중심축으로서 디지털 협력 의제에 대한 유엔 회원국 등 다자 이해관계자와 유엔 시스템 간 효과적인 대화 촉진을 위해 유엔 기술 담당 특사(Envoy on Technology)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연결성, 존중, 보호라는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행동 지향 로드맵으로서 글로벌 다중이해관계자들에게 <표 1>과 같이 8가지 핵심 활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무총장은 디지털 협력 로드맵 이행을 통해 디지털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심화와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1) 1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15년 9월, 유엔은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17가지 목표를 채택

- ①빈곤퇴치 ②기아종식과 농업 ③보건 ④교육 ⑤양성평등 ⑥물과 위생 ⑦에너지 ⑧경제성장 ⑨ 산업화 ⑩불평등 완화 ⑪지속가능도시 ⑫지속가능소비생산 ⑬기후변화 ⑭대양·바다·해양자원 ⑮생물다양성·생태계 ⑯평화·제도 ⑰이행수단·글로벌파트너십

<표 1> 디지털 협력 로드맵의 8대 핵심 활동 방향

	(글로벌 연결성) SDGs에 의거, 2030년까지 보편적이고 저렴한 연결성 달성 - 모두가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가격에 안전한 인터넷 접근성 제공
	(디지털 공공재) 보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공공재 증진 - 오픈소스 등 양질의 디지털 공공재 개발과 확산 노력이 필요
	(디지털 포용성)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지털 포용 보장 - 디지털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도구에 대한 소외계층의 동등한 접근 보장이 필요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역량 구축과 강화는 필수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목표 - 전 세계적(특히 개도국)으로 국가와 사회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 교육이 필요
	(디지털 인권)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보장 - 인권은 온·오프라인에 동일하게 존재하며 존중되어야 함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협력 지원 - 신뢰할 수 있고 인권을 기반으로 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평화를 촉진하는 AI
	(디지털 신뢰 및 보안) 디지털 신뢰 및 보안 촉진 - 기술의 오용 위험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술 활용 유도를 위한 노력 지속 및 이를 위한 글로벌 대화 촉구
	(글로벌 디지털 협력) 포용적 디지털 협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체계 구축 - 디지털 거버넌스를 우선순위로 하고 보다 단일화된 디지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 지속

2.2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 채택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세계 각국정상들은 유엔 창립 75주년과 SDGs 이행 5주년을 기념하며 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12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동 논의에서 국제사회는 기술을 글로벌 이슈로 다뤄야 한다는 것과 디지털 기술의 유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협력을 증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유엔이 이러한 디지털 협력의 이행을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12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2> 디지털 협력 이행을 위한 12개 실천 과제

01. 포용(Leave no one behind)	02. 지구환경 보호	03. 평화증진 및 갈등예방	04. 국제법 준수와 정의 보장	05. 여성 및 여아 중심	06. 신뢰 구축
07. 디지털 협력 증진	08. 유엔 혁신	09. 지속가능한 자원 보장	10. 파트너십 증대	11. 청년의견 반영 및 협력	12. 미래 대비

2.3 우리의 공동 의제(OCA, Our Common Agenda)

2021년 9월,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사무총장은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에서 채택한 12개 실천과제의 이행 방안을 담은 '우리의 공동 의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사무총장은 '우리의 공동 의제'를 통해 203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보다 네트워킹되고, 포용적이며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통해 우리의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에서 채택한 12가지 실천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며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노력을 재촉하기 위한 2024년 미래 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후 2022년 '우리의 공동 의제' 보고서 이행을 위한 2차례 비공식 협의가 진행되어 아래와 같은 3가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2024년 미래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 모든 관련 파트너와 협력하여 정부 간 프로세스를 주도할 공동 촉진자를 임명하여 미래 정상회담, 미래 세대에 관한 선언 및 유엔 청소년 사무소 설립 추진
- 총회 업무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방법과 수단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 토론을 촉진
- 사무총장의 구두 업데이트 직후 다른 모든 관련 파트너와 함께 OCA 보고서 이행 진행 상황에 대한 집중 논의를 시작

2.4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 Global Digital Compact)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는 디지털 협력 의제 이행을 위해 2024년 미래 정상회의에서 채택 예정인 '모두를 위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한 공유 원칙'이다. 디지털에 모두를 연결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 재확인, 디지털 공공재, 디지털 인권, 디지털 신뢰와 보안, 인공지능, 디지털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예정이다. GDC 논의를 이끌 공동 조정자로 르완다와 스웨덴이 2022년 10월 UN 총회에서 임명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다자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과정을 진행해 정부간 협상을 위한 GDC 초안을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초 진행된 회원국 비공식 협의에서 향후 GDC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개도국에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공유, 온라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인간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 원칙이라는 3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며, 지속적으로 다자이해관계자 논의에 참여해 오고 있다. 또한 이번 논의과정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AI 관련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AI 글로벌 협력에 대한 고위급 자문그룹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각 회원국을 비롯한 다자이해관계자들이 후보를 제출한 상황이며 한국도 후보를 제안하였다. 10월 중으로 최대 32명의 위원을 임명하여 자문그룹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동 자문그룹은 AI 거버넌스와 AI와 관련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에 대한 보고서를 2024년 미래정상회의 전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3. 맺음말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엔과 전 세계 회원국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통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9월

1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SDG Digital 행사 개최사를 통해 도린 보그단-마틴 (Ms.Doreen Bogdan-Martin) ITU 사무총장은 “온라인에 연결되지 못한 세계 인구가 2022년 27억 명에서 2023년 26억명으로 일부 감소하였으나 현재 추세로는 2030년까지 전세계 인구를 온라인에 연결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디지털 혁신을 통해 2030 SDG 목표 달성을 위한 촉박한 일정에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DG Digital 행사에 이어서 개최된 2023 SDG Summit에서 각국 정상들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되어 있는 SDGs의 이행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디지털 협력은 범분야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 예정인 2024년 미래 정상회의 (Summit of the Future)에 대비하여 한국도 유엔 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정부간 협력, 유관 기관의 참여, 학계·산업계·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등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에는 디지털 거버넌스, AI, 디지털 인권, 보안 등 논쟁적 이슈들도 다수 포함되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AI, 사이버 보안 등은 국제 규범화에 대한 UN 차원의 논의에 부정적인 선진국과 이를 적극 제기하고 있는 비서방권 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디지털 협력 의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략적 참여 방안에 대한 국내적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협력 의제 이행을 위한 한국의 장기적 전략 수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1] UN(2020),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UN
- [2] UN(2020), Road map for digital cooperation: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High-level Panel on Digital Cooperation(A/74/821), UN
- [3] UN(2020), Declaration on the commemoration of the seventy-fif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A/RES/75/1), UN
- [4] UN(2021), OUR COMMON AGENDA(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 [5] UN(2021), Implementing the Secretary-General's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UN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s Envoy on Technology
- [6] UN(2022), Implementing the Secretary-General's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UN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s Envoy on Technology
- [7] 전선민(2023), 유엔 디지털 협력 의제와 정책적 대응, KISDI Perspectives 2023-03-01
- [8] UN(2023), A/HLPF/2023/L.1, UN

※ 출처: TTA 저널 제209호